

내적치유를 위한 묵상 - 4

- 김형석 목사/ 1994

바람직한 사역을 위한 내적치유

마지막으로 내적치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능력있게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사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상한 것들이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는 내적치유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내면에 상처와 상함이 있으면 능력있게 일할 수 없다. 이러한 상처와 상함이 치유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주고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가 치유받기 이전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예를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는데도 상처를 받고, 마음의 벽을 더 높이 세우게 되며,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은 독을 내뿜게 된다. 그리고 그 독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며, 죽게 만든다.

예를 들어 목회자의 내면의 상함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그러한 내면의 상함은 어떤 방법으로든 교인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야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자체는 옳다 하더라도 그 말은 『당신들은 그까짓 것도 못합니까?』라는 의미로 전달이 될 수 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외칠 때 그 말은 『당신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라는 의미로 교인들의 마음에 꽂힐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을 때 『공부 좀 해라』는 말은 그의 내면의 상함과 함께 자녀에게 표출되어 그 자녀의 귀에는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으이그, 내가 어떻게 너같은 것을 낳아가지고. . .』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자녀는 부모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마음을 읽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상함이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상처도 함께 전해주게 된다. 그야말로 복음도 주고 상처도 주게 되며, 예수도 주고 내면의 상함도 주게 된다.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세우고 격려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과 행동은 상한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지 「속상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 왔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내적치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부터 내적치유를 필요로 해 온 셈이다. 그러면서도 속상한 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때로 분노를 터뜨릴 때도 있지만- 참거나 그냥 덮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속이 상한 것은 그대로 두면 굼게 마련이고, 골은 것은 터져서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과 행동은 바로 이 상한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따라서 내적치유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치유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마치 구원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하듯이 말이다. 우리의 속은 왜 상했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속상한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속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알아주지 않아서,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이 상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일,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하기 전부터 우리의 속은 상해 있었다는 점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우리는 예민하게 아픔을 느낀다. 우리 몸에 상처가 없었을 때는 서로 부딪히거나 상대방이 툭 쳐도 별로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내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살짝 닿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고통과 아픔이 크게 느껴진다. 삶 속에서 환경이나 인간 관계를 통해 느끼는 아픔과 고통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안에 이미 상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는 속상하게 만들어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것처럼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속이 이미 상해 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쉽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게 되며,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우리의 속이 상해 있는 단적인 증거이다.

.....

우리의 속은 왜 상해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속(마음)은 왜 상해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죄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죄 때문이다. 죄는 단순히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의 사건,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마음에 죄의 흔적을 남긴 것이다.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고 난 후에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를 위한 구원은 이미 일방적으로 선포되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처럼 죄로 우리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 되었다. 죄인인 인간은 모두가 상한 마음의 소유자들이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온 상한 마음의 모습을 성경 창세기 3~4장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한 행동은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것이었다(창3:7). 이는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외적인 표현이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수치감과 열등감이 왔다. 또 죄를 범한 후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은 죄의식으로 인한 책임전가의 행위였다(창3:12~13).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의 의존관계가 단절되고 에덴동산에서 내어쫓김을 당한데서 오는 버림받음 마음의 고통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단절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굶주림, 곧 자신의 기대와 욕망이 좌절되고 무시되는 데서 오는 분노하는 마음과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상한 마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 출처 - 온누리신문 / 1994. 11.27~1995. 1. 15